"보조선 '여말삼사'에 계승 안돼"

신규탁 · 윤기엽 씨 '元간섭기 선종계…' 공동논문서 주장
인경 스님 김방룡씨 주장에 반박…여말삼사와 관계 '시각차'

"보조지눌 스님의 선풍은 단절돼 여말삼사(나옹 · 태고 · 백운 스님)에 이어지지 않았다. 이 점에서 보조선은 여말 임제선의 뿌리가 될 수 없다."

지난 11월 27일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정기학술대회에서 인경 스님, 김방룡 박사 등이 제기한 "한국의 간화선은 돈오점수의 체계며 보조지눌의 간화선풍은 여말삼사에까지 이어진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새로운 논문이 발표됐다.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와 윤기엽 박사(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12월 10일 연세대 국학연구원에서 발표한 공동논문 '원(元)간섭기 선종계의 변화와 몽산사상의 수용전개'를 통해 "보조 스님의 선풍은 원간섭기를 겪으며 퇴색해 여말삼사에 이어지지 않아 여말 삼사에게서는 보조 스님보다 몽산 스님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팀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그에 따른 불교계의 변화를 주목, 선종의 부흥과 신앙결사운동으로 특징 지워지는 무인정권기의 불교계가 원 간섭기에 겪은 변화와 그것이 선종에 미친 영향을 조망했다.

신규탁 교수

윤기엽 박사

다음은 논문요약.

보조 스님(1158~1210)이 활동하던 무신정권기(1170~1270)가 끝나고 원의 간섭이 본격화된 원감충지(圓鑑沖止) 스님 때에 이르면 수선사는 자발적으로 원나라 황제(세조)의 원찰로 전락한다. 뿐만 아니라 충지 스님은 미륵정토신앙을 적극 수용해 보조 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길을 걷는 등 수선사에서 보조선풍은 점차 사라져갔다.

다시 수선사를 일으켜 세운 이는 제 10세 만항 스님. 만항 스님이 원나라 임제종 양기파의 선승 몽산덕이와의 교류를 통해 임제선을 들여오면서 국내의 수행풍토는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수선사뿐 아니라 당대의 선종계를 대표하는 가지산문 또한 몽산 스님과 교류, 임제선이 적극 수용된다.

보조지눌 스님은 화두참구를 강조하면서도 규봉종밀류의 선교일치 사상, 지(知)를 중시하는 하택종 사상, 이통현 화엄 사상의 풍모를 두루 포함하지만 원간섭기를 거치면서는 고려 선풍에서 교학적 요소가 점점 삭제돼 화두 참구에만 몰입하는 몽산덕이 선풍이 풍미하게 된다.

몽산덕이 선풍은 <금강경> <화엄경>수지독송, 화두참구, 보현행원, 지계와 참회, 무심수행, 돈오, 선지식의 점검, 견성성불, 당사자의 주체적인 체험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여말 삼사에게서도 나타난다.

규봉종밀의 저서를 읽다가 보조 스님의 저서를 읽고, 여말 삼사의 저서를 읽어보면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난다. 종밀 스님과 보조 스님은 통하지만, 종밀 스님과 여말 삼사는 통하지 않는다. 보조선과 몽산선, 보조선과 여말삼사의 임제선 사이에는 각각 단절이 있다.

따라서 여말 삼사의 뿌리를 보조 스님에서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보조종조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장락사지 삼국시대 유적
충청대 조사단 시 · 발굴

보물 제 459호 장락동7층모전석탑이 있는 제천시 동쪽 장락사지는 삼국시대 창건돼 조선 초기까지 6차례에 걸쳐 중창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부터 이 지역을 시 · 발굴해온 충청대박물관조사단(단장 장준식)은 12월 8일 지도위원회에서 "'長' '〇〇六月大吉' '天〇' '責三' 등이 새겨진 기와, 연화문 · 당초문 · 귀면문 막새기와와 용도를 알 수 없는 이형기와편과 승문 · 선문평기와가 출토됐다"며 "승문 · 선문기와는 삼국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장락사가 삼국시대에 창건됐음을 짐작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와를 비롯해 출토유물들은 삼국의 문화가 융합되고 독창적으로 재창출된 요소를 담고 있어 제천지역 고대문화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발굴팀은 또한 건물지 유구를 통해 창건 후 통일신라시대 2차례, 고려시대 1차례 등 6번의 중창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같은 성과와 관련 발굴팀은 "장락사지는 장락동7층모전석탑과 함께 제천지역의 가장 중요한 불교유적지이므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안내판을 설치하고, 절터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로를 유적 외곽으로 설치해 유적 훼손을 방지할 것"을 제안했다.

박익순 기자

"청소하니 더욱 정드네요"

전국 문화유산자원봉사자 대회 120명 참가

문화재 사랑을 실천하는 전국 35개 단체 120여명의 문화재지킴이가 한 자리에 모였다.

12월 7 · 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전국문화유산자원봉사자 대회. 이번 대회는 그간 문화재 관리정책에서 소외돼왔던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예고한 행사였다.

단체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벤치마킹 차원에서 마련된 수범사례 발표시간에는 학생대상 교육을 특화한 사단법인 한국의 재발견(대표 손용해), 한 가족 한 문화재 운동의 원조격인 안동문화지킴이(대표 임재해), 학생을 주축으로 활동하는 제주문화지킴이(지도교사 이재삼) 등이 발표했다. 특히 보유 문화재가 500여 점이나 되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지역의 실정을 알리고, 그런 여건에서 시작돼 활성화 일로에 있는 '한 가족 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소개해 갈채를 받기도 했다.

대회 이틀째인 8일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창덕궁 연경당의 먼지를 털고 쓸며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연소 참가자 고아라양(제주 문화재지킴이 · 신성여중 3년)은 "고건축 문화재를 청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청소하고 나니 문화재들이 내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틀간 행사에 동참했던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은 "다른 단체의 활동을 보며 새로운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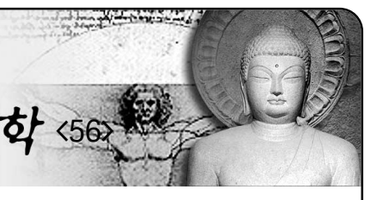
창덕궁 연경당을 청소하며 참가자들은 문화재를 내몸처럼 아끼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추진되다보니 대회의 성격에 대한 고민이 불충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이번 대회는 토론회인지 축제인지 성격이 모호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05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지원 예산이 2억 2천만원 신규 편성됐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대회를 여는 한편,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글 · 사진=박익순 기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56>



열림에 대한 자각

생명의 한 모습(蘊)으로서의 생명체는 결코 머무르지 않는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생명체가 머무르지 않는 열림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곧 관계(關係) 그 자체임을 말하고 있다. 관계란 이것이 있음에 저것이 있음이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음이다.

현대 생명과학은 지금까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오온(五蘊)을 해체해 각 구성인자를 찾아가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유전자 지도가 나오고 단백체공학이 나타났으며 생명체복제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제 되돌아보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는 현대 생명과학에서 더욱 요구되는 것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인자에 대한 지식이나 이들에 대한 조작이 아니라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균형잡힌 관계에 대한 지식이며 이러한 관계의 복원, 그리고 이를 위한 전체적인 연구 방향의 정립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과학이란 이름으로 해체해 온 관계의 복원과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불교는 생사(生死)를 뛰어넘는 깨달음을 말한다. 허나 깨달은 자가 죽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 불가에서는 불이(不二)라는 말이 있듯이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그렇다면 생(生)을 그리 열심히 추구하는 생명과학과 불가의 연결점은 어디일까?

생명과학이 지금처럼 생명체의 소멸이라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살아있는 상태에 대한 집착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불교가 지향하는 고(苦)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고란 열린 관계가 머물러 닫히며 억압될 때 생겨난다. 따라서 생명과학이 관계에 바탕을 두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명과학의 바닥에 깔려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전환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삶과 고통에 대한 인식전환을 말하고 있다. 우리의 인식이 이 세상은 살아있어 항상 열려 있는 관계 그 자체이라는 것으로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이미 이 세상(생명)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식의 전환을 통한 열림에 대한 자각이란 그 무엇도 절대화 시키거나 이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멀리해야 함을 뜻한다. 주위에서 종종 깨달음이라고 말하면서 승속을 막론하고 어려운 말로 열심히 이야기하는 이들을 본다. 그것은 닫힘이다. 깨달음이 체화(體化)되어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일상의 언어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깨달음은 머물러 닫혀 죽은 것이 된다. 선종(禪宗)의 위대함은 일상(日常)의 재발견을 통해 불교를 재발견한 것에 있다. 그렇기에 밥 먹고 잠자며, 생로병사가 있는 이 일상의 삶은 버려야 할 화택(火宅)이 아니라 생명체의 천진(天眞)한 모습이니 생명과학은 이를 위해 있을 뿐이고, 그렇기에 불교를 통한 생명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조건 죽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를 중생수순(衆生隨順)으로 열려있게 하여 진정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은 살아 있기에 항상 열려 있는 것
일상의 재발견 통해 깨침의 삶 추구해야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그림 : 문병성

佛心에 원력이 깊으신 투자자를 모십니다 국내최초 불교병원

방부불교병원은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자비실천운동을 펼치는 불교종합병원입니다.

"
병자를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만일 병든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돌보지 않으면 법률로서
다스리리라.
이것이 내가 내린 명령이니라.
〈증일아함경〉
"

제일은행 725-10-022949(예금주 방부의료법인)

투자문의 062-221-3204
011-655-1406 / 011-613-9050

불교세가 약하다는 호남의 중심 광주 한복판에 '불교'의 이름을 걸고 佛法 수호는 물론 부처님의 慧命을 받들고자 신명을 다해 250여 병상을 갖춘 '방부불교병원'을 개원해 1년여를 운영해 왔습니다.
오로지 빛고을 광주에 佛心을 일으키고, 열악한 불교 의료환경에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마음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마음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영 미숙으로 상당한 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부처님 전 눈물로 기도에 매달리지만 현실의 냉정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 제방의 대덕스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佛心에 원력이 깊으신 佛子 여러분에게 투자해주시기를 읍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전 애원하면서 중생 환우들을 구하실 法友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약사여래불

갑신년 10월 관음재일에
병원장 홍 기 표 합장

현대불교신문 465호 (2004.3.17) 게재

진한감동, 따뜻한 병원
방부불교병원
BANGBU BUDDHISM HOSPITAL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88-14
Tel. 062)221-3300

• 가정의학과 Ⅰ · Ⅱ · Ⅲ • 내과 Ⅰ · Ⅱ • 일반외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비뇨기과 • 마취통증의학과 • 영상진단의학과 • 예진실 • 종합건강증진센터 • 응급실 등